
한국인류학에서의 비교연구와 HRAF

조 옥 라*

1. 비교문화연구란

인류학에서 비교연구방법은 인류학 자체를 의미할 정도로 중요하다. 어떤 특정 사회를 연구할 경우에 있어서도 비교문화적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류학적 연구는 그러한 관점을 내포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인류집단들이 발달시켜 온 여러 제도 사회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때 인간의 제도,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인류학연구에서 비교문화연구는 그리 큰 관심을 끌어 오지는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인류학이 발달되어진 배경과 무

*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관하다고 볼 수 없다. 비교적 짧은 연구 역사 속에서 초기 연구들은 민속학적 접근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김광익 1987; 한상복 1988 참고). 사회과학적 접근으로서의 인류학연구들이 진행되어 온 최근에 있어서도 국내 지역 연구가 타문화에 관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타문화에 대한 자료를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내용들도 별로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재외국민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학위를 위한 현장연구를 타국에서 하는 연구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약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학회나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에서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여전히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문적인 훈련과정, 연구자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경험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류학계에서 여러 번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문화연구를 주로 하는 한국인류학과 민속학과의 관계이다. 민속학자들은 민속학이 민족과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인류학계열에 드는 학문이라고 했다(이두현 외 1981: 6). 다른 한편에서는 민속학이 연구자가 속한 사회를 연구하는 자문화연구이며 인류학은 타문화연구를 하는 것으로 구별짓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학이 사회과학이며 민속학이 인문과학에 속한다는 일반화된 분류를 생각한다면 인류학이 인류집단의 보편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출발하는 반면 민속학은 각 민족의 고유성을 밝히려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차이점이 중요하다. 이는 더 나아가 자료수집에서 민속학이 구전문화의 자료수집에 치중한다고 한다면 인류학은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 문화양상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표시한다는 측면에서 구별지워질 수 있겠다. 이러한 표면적인 차이점 외에도 주목되는 측면은 바로 자료분석상의 차이일 것이다. 민속학적 자료들은 서로 연결되어 해석되기보다는 자료자체의 특성이 분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여 인류학 자료들은 수집과정과 분석에서 자료 상호간의 관계, 조건, 환경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비교에서도 나타나듯이 인류학의 가장 큰 강점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문화의 본질을 규명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인류학에서 이러한 인류학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인류학에 대한 관심은 민속학적 영향과 대학의 인류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 학문훈련과정에서 한국사회의 특징을 밝혀 내는 작업과 연결되어 왔다. 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외국인류학자들의 현장연구(fieldwork)에 의하여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인류학교육에서 서구인류학자들의 민족지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세대 인류학자들의 現地는 한국문화, 그 중에서도 농촌마을연구였다. 그 밑에서 훈련을 받은 2세대 학자들도 이러한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주로 며칠간에 진행되었고 질문지와 심층면접법에 의하여 자료가 수집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인류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의 특성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문화요소 중에도 전통문화의 특징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주제는 바로 외국 인류학자들이 주목하여 연구하는 영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현대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은 주로 석사논문을 쓰는 젊은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왔다.

인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년이 넘은 현재에도 한국인류학 방법론에 대한 토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두 차례에 걸친 인류학 교육에 대한 전국대회의 토의에서도 한국인류학 연구와 관점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제기되지 못했다. 자문화연구가 안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한국을 연구한 외국학자들의 분석방법이나 분석틀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외국을 연구한 한국인류학자의 연구방법론들을 본격적으로 비교 토의하는 장은 아직 등장하지 못했다. 대학원 학생들의 석사논문들에 반영된 제3세계적 시각, 즉 세계체계의 일부로 한국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현장연구를 하는 경향에 대한 토의도 이러한 연구가 인류학적인가라는 질문 속에

서만 논의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한국인류학의 경향은 무엇보다도 한국사회가 외국문화와의 접촉이 그리 활발하지 못한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 외국문화와 접촉했을 경우에도 대등한 입장에서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진 문화습득의 뼈아픈 경험이 외국문화를 보는 편향된 시각을 낳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한국 문화의 고유성 내지 우월성을 밝히려는 의욕이 학자들간에도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선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문화는 가해자적인 입장에 있는 일본이나 서구 공업국들이며, 이들 국가의 문화를 국가 ‘발전’이라는 시각에서밖에 평가하지 않는 경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류학은 정체적인 시각에서 전통문화의 구조를 밝히려나 한국문화유형을 만들어 보겠다는 경향, 한국 고유문화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조사 보고하고자 하는 경향, 그리고 한국의 제3세계적 특성을 현장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려는 경향 등 세 가지 범주로서 연구관점들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에 외국, 타문화연구의 시도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인류학이 그 연구목적으로 자주 내세우는 다양성 속에서 인류문화의 고유성을 밝히려는 측면은 아주 약하게밖에 남아 있지 않다. 과연 이러한 한국인류학의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쯤은 질문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경향 속에서 비교문화적 관점은 주어진 것으로, 특별히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논의가 된 주제는 한국, 중국, 일본 동양 3국의 친족구조를 비교하는 시도들이 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문화연구에서 한국문화와 무관하게 제기되면서 동양 3국과 연결이 안되는 한국학자의 연구로는 대만의 고산족(김광익 1980), 프랑스에 이주한 묘족연구(임봉길 1984), 미

국농촌사회연구(최협 1979) 등에 불과하다.¹⁾ 결국 소위 단순사회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인류학 영역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자가 한국인류학에서는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 바로 한국인류학의 연구대상과 해석방식상의 차이를 유발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비교문화연구가 시도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문화의 본질에 대한 탐구 내지는 한 사회에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화의 고정관념에 대한 검증울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게 된 학자들은 탈식민지시대에 제기되는 문제들, 즉 우리 문화법칙에 대하여 토착인류학자들이 외국학자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에는 토의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 문화를 인류문화의 본질과 연결시켜 토의할 수 있는 준비는 별로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회에 대하여 연구한 발랑디에 같은 학자가 성적 이원론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생성물을 생겨나게 했다는 주장(피에르 앙사르 1991 : 148)을 펴는 것과 같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인류 전체의 문화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시키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는 인류학자들도 타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부족하고 한국인류학을 객관화시키려는 작업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 사회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은 타사회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김광역 1987 : 61). 인류학에서 현장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류문화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조사연구대상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류학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 문화에 대한 民族誌를 다양하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세계의 문화집단에 대한 민족지들을 모아 놓은 HRAF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1) 서울대 인류학과, 『한국인류학관계박사학위논문초록』, 1987 참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대부분 유수한 대학, 연구소들이 바로 HRAF의 회원단체로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문화에 대한 문헌자료들을 별로 많이 소장하지 않고 있는 한국학계에 서 이 HRAF 자료를 활용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Human Relations Area Files의 구성과 내용

HRAF자료집은 세계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학자들이 손쉽게 여러 문화권에 관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각 문화집단에 관한 인류학자의 민족지 자료들 중에서 가장 그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자료들을 골라 수록하고 그 자료들을 이미 규정되어진 문화특질(cultural traits)별로 재배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손쉽게 특정 문화영역별로나 특정 문화특질별로 분리시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손쉽게 일견할 수 있다. HRAF 자료집은 두 개의 방식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있다. 첫째는 문화자료들의 요약 분류(*Outline of Cultural Materials*, Murdock et al. 1965), 둘째는 세계문화의 요약(*Outline of World Cultures*, Murdock 1963)에 따라 선정된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기존에 알려진 민족지를 수록하는 데 끝나지 않고 새롭게 발표되는 연구업적들을 평가하여 계속하여서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전세계의 회원들에게 file로서 공급되며 준회원인 경우에는 microfiche형태로서 개별지역별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대학만이 정회원으로서는 모든 file을 갖추고 있으며 서강대학에서는 일부만 microfiche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연구자들도 원하기만 하면 이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집의 실체를 아는 충조차 많지 않고 이 자료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연구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제한된 HRAF의 활용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교연구의 전통이 한국인류학에서 아직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지 못한 것에도 기인되며 다른 측면에서는 HRAF 자체의 성격에 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HRAF 자료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HRAF의 자료가 어떻게 선정되어 범주화된 자료로서 이 File을 이루게 되었는지 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자료집을 집대성한 Murdock은 가능한 이 자료집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록하도록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란, 연구단위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재정의들이 내려졌다. 인류학자들이 내리는 문화영역의 단위는 인류학자들의 수만큼 많다고 하지만 문화와 문화를 구별시키는 단위가 언어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HRAF에서 문화단위는 바로 언어단위이다. 그리고 지역적인 분류는 오대양 육대륙을 나눈 다음에 현재의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 문화권으로 나눈 다음 다시 개별 문화별로 분리시켜 놓았다. 이는 Murdock이 최초의 작업을 할 당시에 265 사회에 해당되었지만 계속 그 수는 새로운 자료가 첨가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문화에 개별적으로 선택, 분류되어진 자료들은 그러나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인류학자들의 민족지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community) 수준에서 수집한 심층적인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한 단위 문화에 포함시킨 민족지가 지역적으로 고루 배열된 지역공동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HRAF를 위한 자료수집을 했기보다는 개별 연구자가 자신들의 연구목적에 맞추어 연구된 자료들 중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HRAF의 자료는 한 사회를 대표하는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좀더 동질성이 강한 작은 집단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은 거의 의도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료는 가능한 다양한 지역에서 얻어진 것으로 여기서 분산성이 통계적인 의미에서의 대표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된다. 이러한 의도적인 편향성은 문화의 총체적 이해가 문화를 가장 잘 보여 주리라고 기대하는 인류학 자체의 성격과 연결된다.

수록된 민족지들은 각 문화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문이 앞에 그대로 소개된다. 그리고는 같은 민족지들이 주제 코드라고 하는 문화특질(cultural traits) 즉, 인간행동, 제도, 예술, 생태 등을 포괄하는 710 범주에 따라 재배치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선정된 민족지 내용은 몇 번씩 되풀이되어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file 면에 가족과 예술에 해당되는 기술이 있으면 이 면은 가족에 해당되는 주제에도 예술에 해당되는 주제 아래도 모두 수록되어 있다. HRAF의 여러 전문연구원들은 각 문화 영역에 적합한 논문이나 민족지를 읽고 평가하여 수록여부를 판단내리는 것뿐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면서 주제에 해당되는 표어나 기호를 하는 작업을 주로 한다. 이러한 주제선택을 한 후 이 자료들은 필요한 만큼 복사하여 주제 항목별로 모아져 수록된다. 이때 각 범주(여기서는 코드)에서 연구자가 보고한 내용의 치밀도, 풍부성 그리고 때로는 정확한 개념규정조차도 다를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포괄적으로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같은 문화영역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개념정의에 바탕을 두고 보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각 주제와 관련되는 여러 참고항목들을 함께 분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자료에 대한 HRAF 연구자의 판단은 최소화시키고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최종판단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수록된 모든 자료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구주제가 다른 학자들이 쓴 여러 주장들이 같은 문화영역에 관한 특정 문화특질이라는 항목에 정리되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각기 항목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다른 기술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이 기술을

어떻게 통일되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HRAF의 입장은 간단하다. HRAF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이론을 대표하지도 토의를 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제한된 한계 내에서 전 세계 문화를 보여 주는 여러 문화영역에 관한 사실적 기술들을 모아 놓은 것뿐이다. Moore(1970)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 자료집이 매우 유용하지만 어떠한 지역 전문가에는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거나 불충분한 자료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자에게는 다른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성 속에서도 세계문화를 이렇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자료집으로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여러 문화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한 자료들이 개발되거나 소개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 자료집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활발한 활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RAF를 자료집으로 여러 문화권에 대한 초보적 정보를 얻는 데에서뿐 아니라 인간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훑어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행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비교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자료집으로서 HRAF를 활용하는 방안

자료집으로서 HRAF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은 연구와 교육 두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자가 자료집으로 HRAF를 활용하는 방식은 자신이 연구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HRAF의 자료에는 1928년의 기록(Brunner 1928)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절판되었거나 구하기 힘든 서구학자들의 초창기 연구들도 볼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친족관계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범주별로 구별되어진 내용을 보면서 개념정의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사회에 관한 자료들은 더욱 더 포괄적이다. 1983년부터 보급하고 있는 AW 66인 Calcutta에는 모두 64개의 문헌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캘커타의 도시화, 발전, 정부기관, 그리고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집은 손쉽게 캘커타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지역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제3세계 도시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훌륭한 문헌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0년대 이후에 보급되기 시작한 많은 file에는 이러한 제3세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민족지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연구자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주제를 선택하여 본격적인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연구를 재점검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타문화연구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사회와의 접촉이 강화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섭렵하는 데 각 사회에 관한 그야말로 가장 고전적인 저서들을 손쉽게 일견하기 위하여 HRAF를 들추어 보는 것이 좋다. 이럴 때 관점들이 서로 다른 자료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각 관점에 따른 자료의 질을 비교하면서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선정한 연구주제가 연구가능한가 여부를 진단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HRAF는 인류학 교육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민족지가 무엇이며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데 아주 적절하기 때문이다. 인류학에서 다양성 속에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내지 통찰력을 현지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민족지를 읽는 것이다. 민족지들로 이루어진 HRAF는 그러한 의미에서 인류학 수업에 주요한 참고문헌이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연구에 관한 강의에서 강의록 작성과 수업에서 각 학생

들이 자신들이 흥미있는 사회에 관한 연구발표를 할 때 동남아 지역의 file을 활용할 수 있다. 동남아를 다룬 개별문헌들을 찾기보다는 HRAF의 동남아 Introduction 부문을 참고하여 연구과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특히 문화특질별로 자료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관심이 가는 여러 영역에 관한 기록의 양과 질을 점검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필수적인 문헌기초연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은 학생들의 기초적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자바 사회에서 종교적 의례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은 OE 5의 file에서 종교부문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별로 자료가 없는 아프리카 여러 문화집단에 대한 문헌들은 이 file를 통하여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우리 인류학의 친족연구와 연관이 되는 친족에 관한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수록하고 있다. 중국 사회의 지역적 편차에 따라 친족범위, 친족관계, 지역사회조직과의 상관관계들은 다르다. 이러한 중국 친족체계에 대하여 file의 친족주제 아래 자료들을 통하여 그 다양성에 대한 기초지식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생긴 것이라는 가설들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상식적 가설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민족지 자료의 주제별 기술을 통하여 재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집으로서 활용하는 데 유의해야 될 점은 상당한 자료들이 초기 인류학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나 체계적인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초기에 분류된 자료들은 현재는 구하기 힘든 여러 일기, 방문기초차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귀한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고 소위 그 사회의 특성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기한 사회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자료조차 일부에 제한되

어 있다는 문제들이 있다. 더구나 한국의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인류사회의 본질적인 데 대한 관심, 즉 초기 사회나 인간의 특성 등에 대하여보다는 변화의 문제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더 관심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래된 자료들만 보고 HRAF 자료전체를 별로 유용성이 없는 낡은 자료 보따리 정도로 인식하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HRAF 연구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시대변화와 맞추어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자료처리의 과정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이 자료집만큼 전 세계 문화영역을 모아 주고 있는 자료집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민족지적 사전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 준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여기서 다루는 문화집단들이 일상적으로 보고되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문화, 언어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의미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자료 자체의 성격에 따른 유용성과 제한점에 대한 고려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는 모든 자료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 많은 자료를 그냥 일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언어장벽이다. 더구나 서강대학처럼 자료가 microfiche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화면을 통하여 오랫동안 읽기가 힘들다. 이 상태를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비용관계로 필요한 전 자료를 복사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자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층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수준일 수밖에 없으며 전문적인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 자료들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집이 지닌 잠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학원이나 학부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과목은 지역연구와 연관된 과목 외에도 대부분의 인류학 수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의계획을 짜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족지나 문헌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리고 주제별로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집이

유용할 수 있다. 인류학 과목외에도 비교사회연구과목(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종교학 등의 인접과목에서도)에서 교재의 일부나 참고, 부교재물로 활용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는 데 이 자료집이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민족지사전으로서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관심 영역이 다른 문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때 비데오 등 시청각교재와 병행하여 토론을 유도하면서 인류문화의 본질에 대한 사고와 비교문화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개발하고, 지나치게 우리 사회와 문화를 중심으로 사고하면서도 다른 사회라고 하면 발달된 서구사회 그중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만 염두에 두고 있는 사고방식의 전환에 이러한 자료집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과목을 준비하면서도 HRAF가 수용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강의록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최소한 이러한 자료집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는 방식에 의해서라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화영역이나 주제에 대한 번역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전 자료를 번역한다는 것은 광대한 작업을 요구하지만 한국인류학자들이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자주 활용하는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자료를 장기간 계획으로 번역하는 작업도 HRAF와 같은 민족지사전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최근의 컴퓨터의 일반적 보급으로 이러한 번역작업은 상당히 쉬워졌기 때문에 한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4. HRAF를 활용한 비교문화연구방법

HRAF 자료를 단순한 자료집으로 사용하는 방식외에도 전 세계 문

화를 모두 망라한다는 면에서 인류문화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적 작업을 위한 연구대상자료로 볼 수도 있다. 즉 화일을 연구자료 자체로 간주하여 비교문화연구를 하는 것이다. 인간사회와 문화에서 중요한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연관이 되어 있는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비교문화연구의 핵심적 부문이다(Naroll 1972 : 1228). 이러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과정은 HRAF의 전 자료를 놓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HRAF 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HRAF가 수록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이 민족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한 문화영역에 대한 단순한 자료가 그 자료 자체로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형태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 문화집단의 여러 문화적 특질이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인간의 다양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문화집단을 포괄하여 자료집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연구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문제들은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즉 세계 전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주제를 택하여 이론을 검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질문은 이 이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상당히 수준이 다른 사회에서 소위 '적절하다' 또는 '맞다'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 검증과정과 평가에 대한 논의는 끝없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통계학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Naroll (1970, 1972)연구가 그 중요한 예이다. 이러한 비교문화연구의 단계를 따라 살펴보면서 HRAF를 통한 연구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여 보자.

1) 연구주제의 설정: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류학의 모든 주제가 이러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가능한 인간집단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영역으로 예를 들면 가족형태, 사회화, 경제조직, 종교의례와 연관된 가설을 만들어 검증해 볼 수 있다. 가설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가

능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사회화가 어머니에게 독점되어질수록 어린이의 심리적 안정성이 높다” 또는 “여성의 경제참여가 높을수록 이혼율이 높다” 등의 이론을 여러 문화의 다양한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와 그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평가, 사회적 지위 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연구되는 부계문중조직이 농경사회적 요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러한 비교문화적 분석은 단순한 비교에서부터 인과론적인 해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영역 내의 설명이 하나의 가설로서 정리되어 영향을 주고 받는 영역이나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점중의 연구에서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문제를 다루기는 힘든데 이는 자료집 자체의 제한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구조기능주의적 틀에 따라 변하는 면보다는 변하지 않는 면에 더 집중하여서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각 문화가 겪고 있는 변화의 동태적인 측면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자는 실제 식민지화가 토착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토착사회를 분류하고 그 사회구조의 차이와 연결시켜 식민지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발달시킨 제반 제도를 지적하여 소위 식민지화의 탄력성(elasticity)의 문제를 분석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이 경우 대상사회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지나치게 들쭉날쭉해서 사회복잡성의 정도 내지 발달된 사회조직들의 정도를 측량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상당히 힘만 들고 분석의 결과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비교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HRAF 자료가 안고 있는 장점에 주목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2) 가설의 설정: 인류학이 가설을 가능한 느슨하게 만들어 현장연구를 위하여 현지에 들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교문화연구에서는 이 자료집이라는 분석대상에 분명한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가설은 상호관련성, 그리고 가능한 인과론적인 설명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영향을 주고 있는 영역이나 변수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누어 조작적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형태와 경제구조와의 관계에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많으면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다”라는 가설을 갖고 여러 사회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적 참여의 정도는 어떠한 측면을 고려하여 어떠한 단계로 그 정도를 나눌 수 있겠느냐, 특히 가족 내 여성의 지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그 높낮이를 판정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 내의 변수가 객관적으로 그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을 정도로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할 경우 더 손쉽게 검증할 수 있다.

3) 가설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다: HRAF를 자료로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은 한 집단에서 관찰되는 데서 나온 설명을 더 일반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설을 모든 문화집단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가설의 수준에 맞추어 문화집단들의 특성을 지정한 다음에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 현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가설은 가능한 전 문화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한 문화권마다 선정된 문화집단의 수, 특히 각 문화에 대한 기술상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단계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의 정립은 실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된 문화영역 중에서 여러 다른 수준에 있는 사회들을 될 수 있는대로 골고루 포함하면서 가설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사회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시도해 보았던 연구에서는 식민지화 과정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고를 수밖에 없어 HRAF 화일 중에서 문화접변(acculturation) 또는 문화변동에 관한 항목이 많은 문화집단을 각 문화영역별로 선정하였다. 각 사회의 사회구조에 대한 자료들은 모두 친족이나 정치제도 등의 항목

에 모두 수록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보여 주는 측면에 치중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했었다.

4) 선택된 지역에서 가설로 제시되어진 변수들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이 그 다음 단계이다. 각 변수들은 일단 HRAF의 주제 기호(subject code)로 각 특질에 대하여 또는 그것과 연관되는 자료들은 각 사회마다 따로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모든 자료들의 성격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변수에 반드시 적합한 것인지조차 초기단계에서는 모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그 수준과 정도를 구별지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은 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의미있는 인과론적 관계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비교문화연구에서는 계량적인 방식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이다.

5) 계량적 방법을 위하여 변수 내의 수준이나 방향에 따라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즉 앞에서 드는 예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4단계 또는 5단계로 사회마다 다른 수준으로 점수를 두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도 그 정도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선정된 사회에서 해당 문화특질에 관한 자료를 일괄하여 도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작업이 이론검증을 하는 비교문화연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다. 실제 이 과정을 거쳐 가면서 얼마나라는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영역뿐 아니라 그 이론적 가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에서 들고 있는 가설을 예로 활용하면 여성의 지위와 경제활동뿐 아니라 친족제도나 인구, 거주 방식 등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가설의 검증과정에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이를 통계변수로서 통계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6) 만들어진 코드표를 기반으로 하여 적당한 통계적인 처리를 컴퓨터등을 통하여 한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결론을 내린 후 연구보고서를 쓴다.

위에서 지적한 과정을 통하여 하는 비교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주의해야 할 다른 측면은 두 변수간에 보여지는 상관관계가 역사적으로 문화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하면서 나온 것인지 엄밀한 의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은 소위 'Galton's Problem'(Naroll and Cohen 1970 eds.: chapter 48, 49)으로 여러 학자들에게서 이미 수차에 걸쳐 토의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통계학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HRAF를 사용한 연구들은 자료문헌분석에 의존하여 이론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중요시 하는 인류학자들에게는 생소한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인류학자가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어떠한 가설이나 이론화를 피하면서 보편성의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와 같이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 자료집인 HRAF을 사용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 이렇게 전 세계를 망라한 문화자료집에서 자신의 주장을 검증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5. 맺음말

HRAF라는 자료집이 전 세계의 문화집단에 대한 자료를 망라한 민

족지사전 같은 역할을 해 준다는 점을 부인하는 인류학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류학자도 절대 다수일 것이다.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높은 평가를 하면서도 이렇게 제한적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류학자들이 학문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장기간의 현장연구를 택하고 있는 데서 일부 기인한다. 이 방법은 2차적 자료만을 사용하는 비교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낳으며, 동시에 각 개별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가 제한된 지역에서 개인적인 접촉을 기반으로 수집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와 엄밀한 의미에서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류학이 학문으로서 현장연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다는 대명제를 고려해 볼 때 인류학자들의 개별연구가 궁극적으로 서로 비교되고 연결될 때만이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이론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문화연구 자체에 대한 비판은 인류학의 본래적 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여기서 지적될 수 있는 면은 비교문화연구에서 비교하고 있는 문화현상들이 분리가 가능한 것이며 더 나아가 측량하고 그 정도까지도 수치로 환원될 수 있는 성격이냐는 질문은 적절한 비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가 HRAF의 자료를 활용한 비교연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염두에 두고 제안할 수 있는 점은 사회의 인구나 경제규모 등의 누구에게나 분명한 영역을 통제된 후 그 내부의 사회조직, 의례, 정치체제 같은 것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PC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자료를 손쉽게 입력하고 발달된 통계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여러 수준에서의 비교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HRAF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를 자료집으로 사용하는 방식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러 문화에 대한 기술에 접할 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는 데 이 자료집을 능가할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 인류학계의 연구진척 단계로 볼 때 우리는 이론화를 활발히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여러 문화에 대한 자료를 기술하는 논문들이 더 많다. 한국문화의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진 자료집이 부재한 상태이다. HRAF를 자료집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여러 지역의 문화를 주제와 지역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모아 재배치하는 작업도 학문의 체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자료집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사회의 변화, 발전문제에서 출발한 학문적 관심이 사실 궁극적으로 인간집단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은 한국문화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서 우리 스스로를 전 문화권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다른 문화들을 그러한 인정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인류학계에서 인간집단에 대한 심각한 이론적 토의가 얼마나 있었느냐고 반성하는 계기를 이러한 HRAF 자료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에서 찾아 보고 싶다. HRAF가 우리 시점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러한 문화의 다양성, 인간집단의 공통성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정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익

1987 “한국 인류학의 평가와 전망”, 『현상과 인식』 38: 53-89

이두현 외

1981 『한국민속학개설』, 서울: 보성문화사

피에르 앙사르(정수복 옮김)

1991 『현대 프랑스 사회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한상복

1988 “한국 문화인류학 30년”, 『한국문화인류학』 20: 57-76

한상복, 이문웅, 왕한석

1987 『한국인류학관계박사학위논문초록』,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Adler, Leonore Loeb ed.

1982 *Cross-cultural Research at Issue*, New York: Academic Press

Moore, Frank W. ed.

1961 *Readings in Cross-cultural Methodology*, New Haven: HRAF Press

Ford, C. S.

1961 Society, Culture, and the Human Organization, in *Readings in Cross-cultural Methodology*.

Lagace, Robert

1974 *Nature and Use of the HRAF Files*, New Haven: HRAF Press.

Levinson, David ed.

1987 *A Guide to Social Theory: Worldwide Cross-Cultural Tests*, New Haven: HRAF Press

Naroll, Raoul and Ronald Cohen eds.

1970 *A Handbook of Method in Cultural Anthropology*, Garden City: The Natural History Press.

Naroll, Raoul

1972 What have We learned from Cross-Cultural Surveys? *American Anthropologists*, vol 72: 1227-1288